

## 合成纖維와 東레의 오늘 (下)

— 提訴에서 和解로 終決 —

— 承 前 —

ICI가 後發 3社(東洋紡, 日  
 레, 倉레)를 提訴한 內容은  
 (1)原告가 갖고 있는 特許(重  
 合特許와 紡糸特許)의 權利範  
 圍에 屬한다는 것을 確認한다.  
 (2)訴訟費用은 被告의 負擔으  
 로 한다는 것이다.

製造開始前에 先手를 쳐서  
 製造着手을 遲延시키거나 斷念  
 시키려는데에 目標가 있었다.  
 이 訴訟은 그후의 帝人과 東레  
 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3者가  
 合意하여 ICI로 하여금 提起한  
 것이라는 소문이다.

한편 後發 3社가 提携한 것은  
 基本特許가 아니라는 輿論이었  
 으며 ICI의 特許權이 存續하는  
 期間中에는 이들 3社가 제조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化合纖의 過當競爭으로 困境에  
 處해 있는 3社인만큼 企業의  
 存亡을 걸고 企業化한다해도  
 특허전존속기간에는 하지 않을  
 것이며 外資審議會를 通過시키  
 는 根據로 技術을 導入함으로써  
 特許侵害라고 損害를 請求  
 당했을 때에도 導入先이 責任  
 을 진다는 默契였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때의 폴리에스터는 폴리폴  
 로필렌에 比하여 染色性, 可紡  
 性등이 優秀하였고 폴리폴로필  
 렌은 몬테카치니에서도 기업화  
 하지 못했을 때였으므로 꿈의  
 섬유로서 各企業들이 66나일론

이나 폴리에스터섬유의 기업화  
 를 企圖하였었다.

이들 特許侵害訴訟事件에서  
 는 重合特許가 특히 問題點이  
 었다. 그리고 賠償請求金額은  
 實施料에 該當하는 額數였다.

한편 東레와 帝人도 共同으  
 로 東洋紡과 日레를 피고로하  
 여 大阪地法에 損害賠償請求訴  
 訟을 제기하였다. 東洋紡은 10  
 億圓, 日레와 日本에스터도 10  
 억圓을 支拂하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카리코와 大阪高法의  
 抗訴事件이 和解가 始作 되었으  
 므로 中斷되어 화해가 成立됨  
 으로서 소송은 取下되었다.

大阪高法에서는 技術說明會  
 後 和解勸告가 있어 이어 7회  
 의 모임이 있었으나 서로 對立  
 되다가 裁判長의 和解案이 提  
 示되었다. 그리하여 1970年 1  
 月 10日에 화해가 성립되어 카  
 리코에게 東洋紡은 12,000萬圓,  
 日레(유니타카)는 8,000萬圓을  
 지불하고 東레와 帝人에 대하  
 여는 東洋紡은 22,000萬圓, 日  
 레는 18,000萬圓을 지불하고  
 소송은 취하였으며 重合特許와  
 紡糸特許에 관하여 아무런 債  
 權債務가 發生하지 않을뿐더러  
 소송비용은 各己負擔한다는 것  
 으로 落着되었다.

그후 特許期間終了를 목표로  
 한 大事件은 없었으나 어쨌든  
 이 사건을 기뻐한 쪽은 帝人과  
 東레, 그리고 그 系列商社와  
 金融資本들이며 또한 카리코와

ICI가 더 좋아했을 것이다. 問  
 題의 특허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重合特許(日本 203045號)

① 發明의 名稱: 高重合物質  
 의 製造法

② 出願日(優先權主張): 19  
 50年 2月25日

③ 出願公告: 1953年 9月16  
 日

④ 登錄: 1953年 12月 18日

⑤ 特許請求의 範圍要旨

HO(CH<sub>2</sub>)<sub>n</sub>OH系그리콜과 텔  
 레프탈酸 또는 텔레프탈酸의  
 低級脂肪族에스테르를 反應시  
 커 反應生成物을 加熱하여 重  
 合된狀態의 에스테르로 함에 따  
 른 高重合結晶性 또는 高重合  
 微晶性物質의 製造方法

### 2. 紡糸特許(日本 第213515號)

① 發明의 名稱: 高重合物로  
 부터 人造纖維의 製造法

② 出願日(優先權主張): 19  
 50年 5月16日

③ 出願公告: 1953年 10月19  
 日

④ 登錄日: 1955年 5月14日

⑤ 特許請求의 範圍要旨

高重合폴리메틸렌텔레프탈酸  
 에스테르를 溶解狀態에서 線條  
 로 製造하고 그 線條를 纖維軸  
 에 따라 分子配列에 대한 特性  
 있는 人線型을 表示하게끔 強  
 한 可塑性纖維에 冷間引拔을 行  
 한다.

<完>